국토부 산하 기관장 연봉, 대통령보다 많다

평균 1억6049만원… 성과급이 41%

한국도로공사, 2억2544만원 '최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준정부기관·공기업 '기관장 연봉' 비교〉 (단위: 천 원)

기관명	2017년			2018년 기본급
	연봉	기본급	성과급*	
한국도로공사	**225,439**	115,020	**110,419**	121,191
한국토지주택공사	193,832	116,766	77,066	123,030
한국국토정보공사	183,778	**135,131**	48,647	138,644
인천국제공항공사	181,844	130,823	51,021	137,83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81,752	130,757	50,995	137,771
주택도시보증공사	178,078	130,823	47,096	137,899
항공안전기술원	177,830	130,757	47,073	134,157
SR	177,565	110,978	66,587	113,864
한국시설안전공단	176,983	122,786	54,197	129,374
한국감정원	175,146	128,784	46,362	135,684
한국철도시설공단	173,995	130,823	43,172	130,824
한국교통안전공단	170,070	130,823	39,247	137,899
한국철도공사	166,958	112,810	54,148	118,86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66,758	124,217	42,541	130,882
한국공항공사	162,984	122,544	40,440	129,878
주택관리공단	161,724	88,058	73,666	90,347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34,684	95,670	3,203	**139,244**
코레일네트웍스	127,778	85,185	42,593	90,284
코레일유통	127,778	85,185	42,593	90,284
코레일테크	123,519	85,185	38,334	89,756
코레일로지스	110,741	85,185	25,556	90,284
코레일관광개발	110,734	85,180	25,554	89,751
한국건설관리공사	101,264	101,264	0	103,897

*성과급 또는 성과상여금.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들의 지난해 연봉이 모두 1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기관장 연봉이 2억2544만원에 달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많았다. 이들 기관장 연봉의 40% 이상이 성과급이었다.

5일 메트로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임원 연봉을 집계한 결과, 국토부 산하 기관장 24명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6049만원(이하 만원 아래에서 반올림)이었다.

연봉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기타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의 연봉이 2억254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해 장관급 공무원 연봉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2480만원, 국무총리는 1억7427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3185만원, 장관 및 그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815만원이다.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의 지난해 기본급은 1억150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그러나 경영평가 성과급이 1억1042만원으로, 기본급과 비슷한 수준에 책정됐다.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2014년(5736만원)을 제외하곤 모두 1억원이 넘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의 연봉이 1억9383만원으로 2억원 근처다. LH 기관장의 연봉은 지난 2013년 2억3341만원에서 2014년 1억2391만원으로 큰 폭 줄었다가, 2015년 1억9140만원으로 오른 후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2018년 기본급은 1억2303만원으로 2013~2018년 중 가장 높게 책정됐다.

다음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1억8378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억818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본급은 각각 1억3513만원, 1억3082만원으로 한국도로공사보다 높았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SH) 1억7808만원 ▲항공안전기술원 1억7783만원 ▲SR 1억7757만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1억7698만원 ▲한국감정원 1억7515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억7400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억7007만원 ▲한국철도공사는 1억6696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억6676만원 ▲한국공항공사 1억6298만원 ▲주택관리공단이 1억6172만원 등으로 공시됐다.

1억원 초반대로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억3468만원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1억2778만원 ▲코레일테크 1억2352만원 ▲코레일로지스 1억1071만원 ▲코레일관광개발 1억1073만원 등이다.

가장 연봉을 적게 받은 기관은 한국건설관리공사 기관장(1억12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해 기관장에게 성과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다.

지난해 가장 연봉을 많이 받은 한국도로공사 기관장과 가장 적게 받은 한국건설관리공사 기관장의 연봉차이는 1억2418만원이다.

한편, 국토부 산하 24명 기관장이 지난해 받은 성과급 또는 성과상여금은 107억510만으로, 기본급(258억4754만원)에 41.4%에 달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은 1억1042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은 7707만원, 주택관리공단 이사장은 7367만원, SR의 사장은 6659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한국 인공태양' KSTAR 대전 유성구 과학로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있는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KSTAR'. KSTAR는 지난 4일 플라스마 발생 실험 횟수 2만 번을 달성했다고 국가핵융합연구소는 5일 설명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KOEM, 오늘부터 여성리더 역량개발 교육

해양환경공단(KOEM)은 이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공단 비전과 경영목표 달성을 이끌어 갈 '여성리더 역량개발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유능한 여성인재를 조직 내 핵심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이번 교육은 기존 일반직 직원을 비롯하여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여성직원으로서 올바른 리더십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성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조직 내 직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현장 방문 및 업무체험을 통해 진정한 여성 리더로서의 교육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여성인재를 공단의 핵심 리더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여성인재 양성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채신화 기자

가스공사, 신에너지 사업에 1兆 집중 투자

선박연료 'LNG 벙커링' 강화 전망

미세먼지 연간 2000톤 저감 기여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LNG(액화천연가스)벙커링, LNG화물차,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사업에 약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소분야 밸류체인 구축 및 연료전지, LNG벙커링, LNG 화물차 등 친환경 연료전환 사업에 1조원의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가스공사는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 선박 연료로 LNG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규제와 맞물려 국내 LNG 벙커링 수요는 2022년 연간 31만톤, 2030년 연간 136만톤 등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선박연료로 쓰일 LNG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LNG 선박연료 사용을 위한 법·제도 등 근거를 마련하고 LNG 추진선 보급을 위한 지원 제도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2년 건설 예정인 동남권 벙커링 설비 등 선도적 설비 투자로 수요를 견인하고 미세먼지를 또한 연간 2000톤 저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LNG 화물차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교통·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의 63%를 차지하는 경유 화물차 연료를 친환경 연료인 LNG로 공급하게 되면 육상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스공사는 2018~2019년 법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타타대우와 공동으로 고마력(400hp) LNG 화물차를 시범 제작 및 운행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항만, 화물터미널의 LNG 충전소 구축 및 시범 보급, 2021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유도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해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가스공사는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한 기술력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29일 호주 자원개발업체인 우드사이드사와 수소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자동차, SK가스 등 18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사는 SPC를 통해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를 100기까지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또 가스발전기를 구동시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분산형 전원시스템 '자가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기록적인 폭염 속에 주목받고 있는 '가스냉방' 사업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천연가스 신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고 수소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 미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KOGAS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안전보건公-육군본부 '안전육군 만들기'

안전보건공단이 육군본부와 군부대 안전문화 정착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4일 충남 계룡시 소재 육군본부에서 군부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산업인력인 육군 장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 5월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의 협력범위와 실천과제를 확대해 사고예방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

공단은 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3년간 육군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컨설팅 ▲연구분야 협업 등을 지원하고 육군은 발주공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군부대 내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양 기관은 군 시설물에 대한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장병 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공단은 장병 안전을 위해 작년 말 육군에서 발족한 '안전육군만들기 추진단'과 함께 다양한 사고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육군 내 정비·탄약 등 8개 부대에 대한 안전보건컨설팅과 안전전문교관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과정을 진행했으며 올해 7월에는 창군 이래 최초로 육군 장군단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안전관리 최고위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오늘의 날씨

해뜸 / 06:06 | 해짐 / 18:54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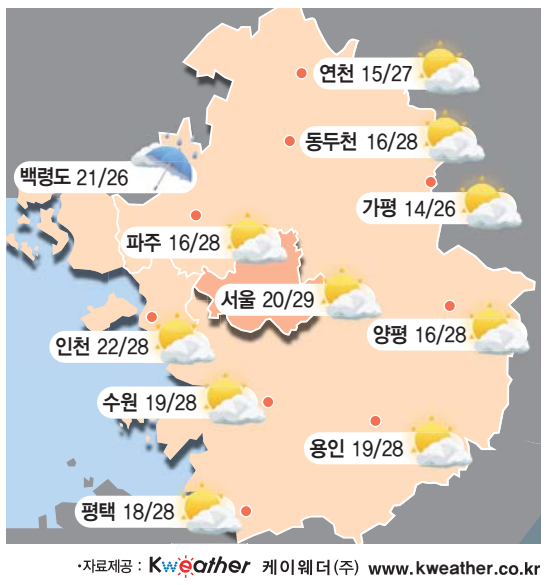
6일(木)

음력 : 7월 27일

수도권 날씨

29~2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